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1.2억 불 성과

- 미래차 첨단소재와 반도체 핵심소재 제조시설 투자 신고서 제출
- 배터리 음극재 등 한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방일기간 중 4.22.(월) 14시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사(社)와 반도체 핵심소재기업 A사(社)가 총 1.2억 불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도레이는 일본기업 중 제조업 분야 최대투자자로 우리나라에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진출하여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섬유,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아라미드섬유와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 고성능 첨단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도레이는 2025년까지 생산라인 증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일 신고한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이 2025년에 완공되면 전기차 구동모터 등에 활용되는 고내열 메타아라미드 섬유가 생산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일본 대표적인 화학기업을 만나 음극재 제조시설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생산시설을 국내 확보 시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내기업과 합작으로 추진하는 음극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TEL; Tokyo Electron Limited)을 방문하여, 가와이 도시키 최고경영자(CEO)와 회담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안 장관은 「일본시장 수출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 진출한 반도체·전기전자·철강·화학·항공·발전·농식품 등 다양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SK하이닉스, 대한항공, 포스코, LG전자, 농심, 코오롱 인더스트리, LS일렉트릭, 한전 등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에서 우리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아울러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한일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한·일 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디지털·그린 전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서기관	지민정 (044-203-4082)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서기관	김성건 (044-203-5691)

